

News

하나금융투자, '5000억 실탄' 장전... 유상증자로 몸집 키운다

머니S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 결의 안건을 의결. 증자 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다. 확충된 자본으로 IB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투자 예정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3월에도 499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기며 초대형 IB 요건을 채웠다. 다만 초대형 IB 인가 신청은 신중하게 조율 중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피했다

조선비즈

금융감독원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감경된 징계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 직무 정지 · 문책 경고 · 주의적 경고 ·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

2월말 은행 연체율 0.33%...전월 대비 0.02%p 상승

연합뉴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1개월 전보다 0.02%포인트 오른 0.33%를 나타냈다.

차주별로 보면 기업 대출 연체율(0.43%)이 한 달 새 0.03%포인트 상승. 대기업대출 연체율(0.36%)은 큰 변화 없었으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44%)이 4bp 상승.

코인 열풍에 제휴은행 신규가입자 '쑥'...은성수 "투자자 보호 못해"

이데일리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계좌를 만들 수 있는 제휴은행의 신규 가입자 폭증.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인증 제휴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는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발언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막는다...보험처리에 과실반영 추진

서울경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

개선 방안은 또 책임(의무)보험인 대인배상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

신생 증권사 고객 유치 전쟁...불건전 영업행위 우려도

조선비즈

토스증권에서 개인투자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주식 증권 이벤트가 화제가 된 가운데, 핀테크 기반 신생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우려 가증

문제는 건전성 여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도한 광고사업비 집행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생겨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자본금 304억을 웃도는 390억원

보험업 군침 흘리는 네이버파이낸셜, 누구와 손잡나?

머니S

네이버파이낸셜의 보험시장 진출이 점차 가시화 되는 분위기. 네이버파이낸셜과 에이플러스에셋 고위 관계자들은 업무협약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카드, 바이오 인증 등 플랫폼 및 고객정보, 에이플러스에셋은 생명보험 상품 제공하는 것. 보험업 관계자는 양사가 협업 이상을 계획할 수도 있다고 전달

시가총액 1조 넘는 기업, 기술특례 상장시 사전평가 면제된다

뉴스1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평가에서 사전 평가를 면제. 시가총액을 통해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증명됐다고 본 것

지금까지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등급을 A나 BBB 이상을 받아야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